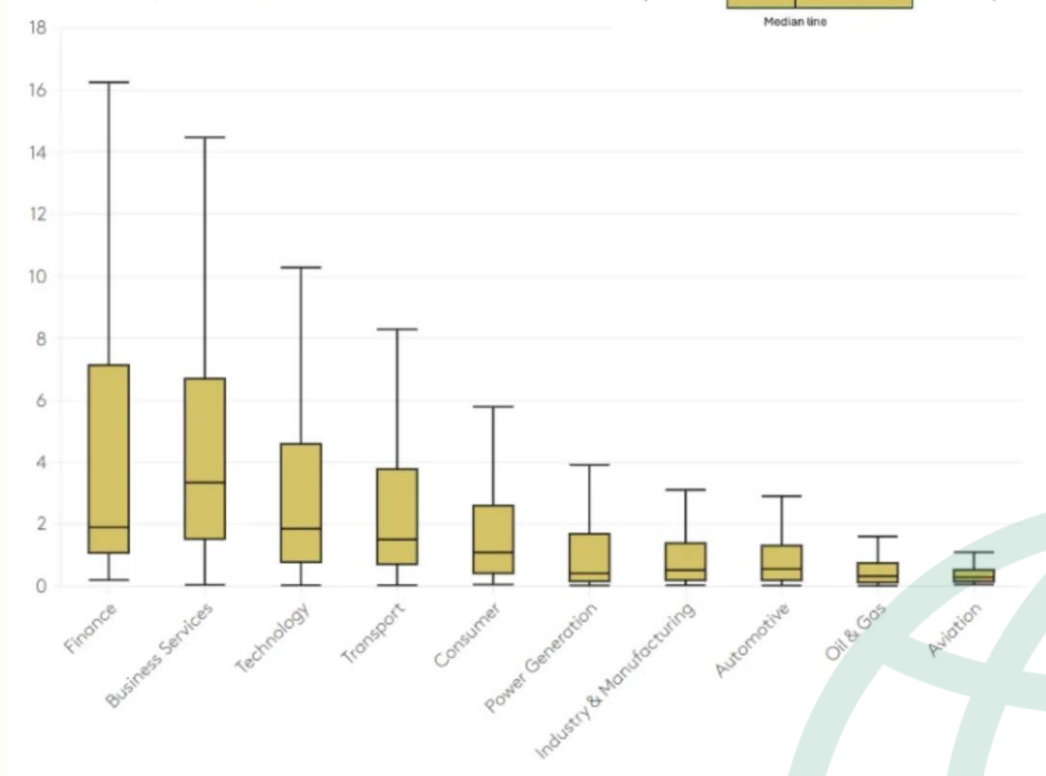




산업 동향

Median ability to pay by sector

Ability to pay by sector, Scope 1, 2 and 3, \$/tCO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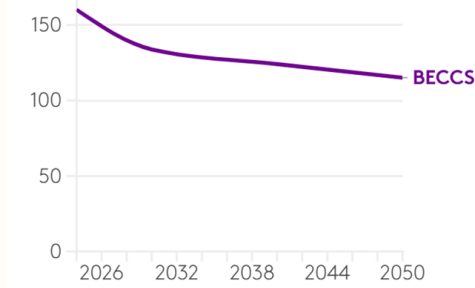
Source: Fastmarkets

We use 2023 emissions values, including all Scope 3 emissions that are reported by company. We compare emissions against 1% of profits. Profits are averaged across FY22-24 to avoid annual fluctuations. Companies with negative average profits are excluded from the results. Emissions and financial data sourced from ISS ESG and S&P Capital IQ respectiv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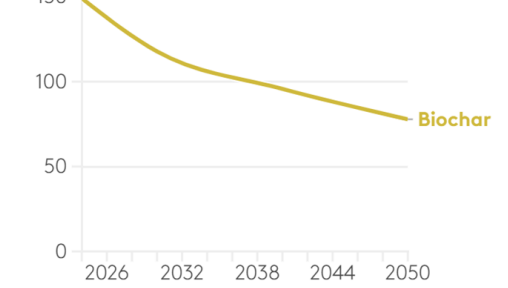
Tech-based removals costs (\$/tCO2)

Cost forecasts for durable CD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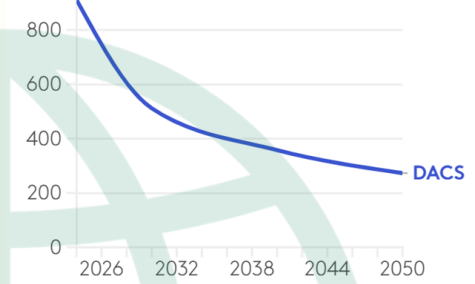
BEC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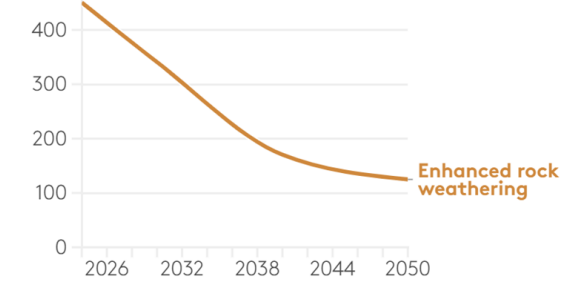
Biochar



DACS



Enhanced rock weath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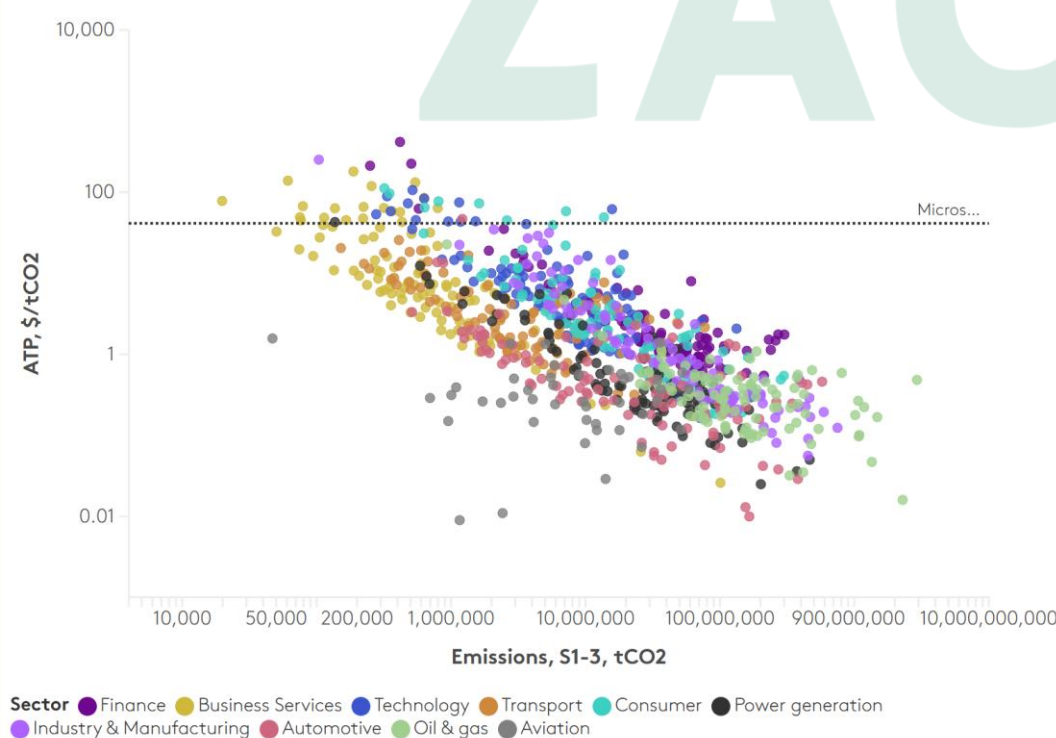


Source: Fastmarkets

We average technology costs across multiple sources including Climeworks (2024) Pioneering the race to zero Key strategies and innovations to scale up carbon dioxide removal; McKinsey & Company (2023) Carbon removals: How to scale a new gigaton industry; The State of Carbon Dioxide Removal - 1st Editio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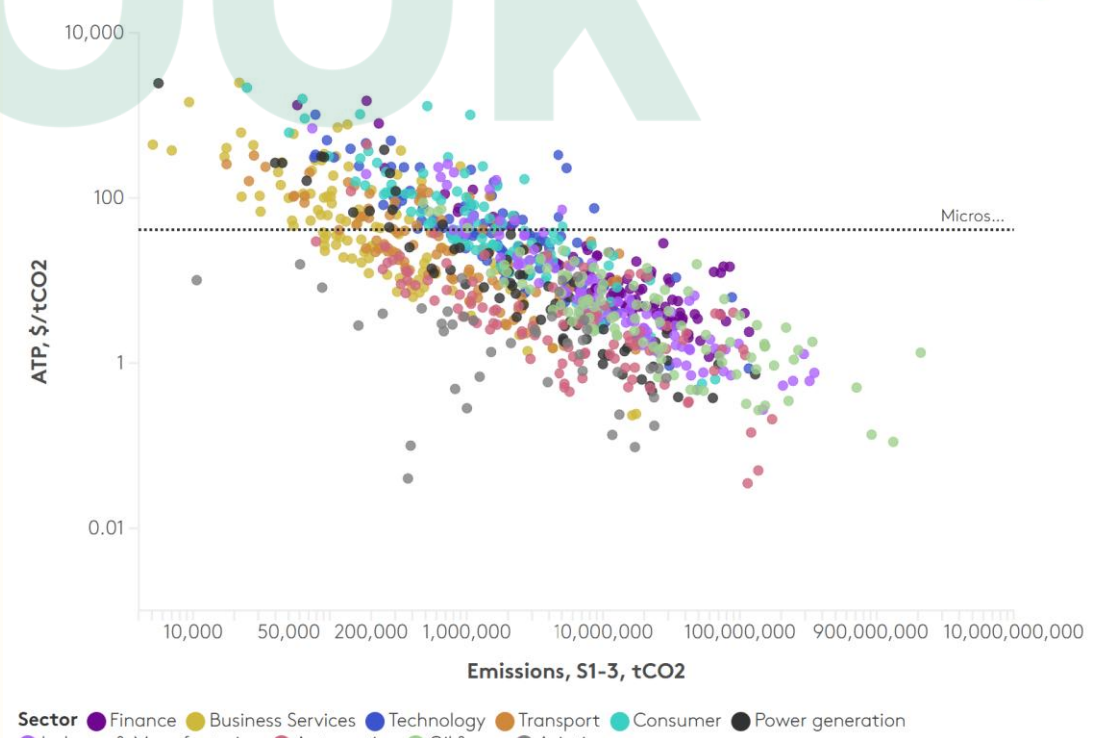
- **탄소 제거 기술의 경제성 향상:** 탄소 제거 기술의 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제거 크레딧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도적인 역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에 전체 탄소 제거 크레딧 구매의 64%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기술의 채택:** 기업들은 바이오차, 직접 공기 포집(DAC), 강화된 암석 풍화 등 다양한 탄소 제거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시장 성장 전망:** 탄소 제거 시장은 2030년까지 연간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의 27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 **다가오는 탄소 제거 비용 접근성의 급등:** 2050년까지 기술 비용 감소와 기업 수익 증가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수준의 탄소 제거(CDR)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 수가 11배 이상 증가하고, 직접공기포집(DAC) 기반의 넷제로 포트폴리오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 비율도 현재의 1/2,000에서 1/40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Current state of play: Ability to pay by company type (2024)



Sector: Finance, Business Services, Technology, Transport, Consumer, Power generation, Industry & Manufacturing, Automotive, Oil & gas, Aviation

Forecast: Ability to pay by company type in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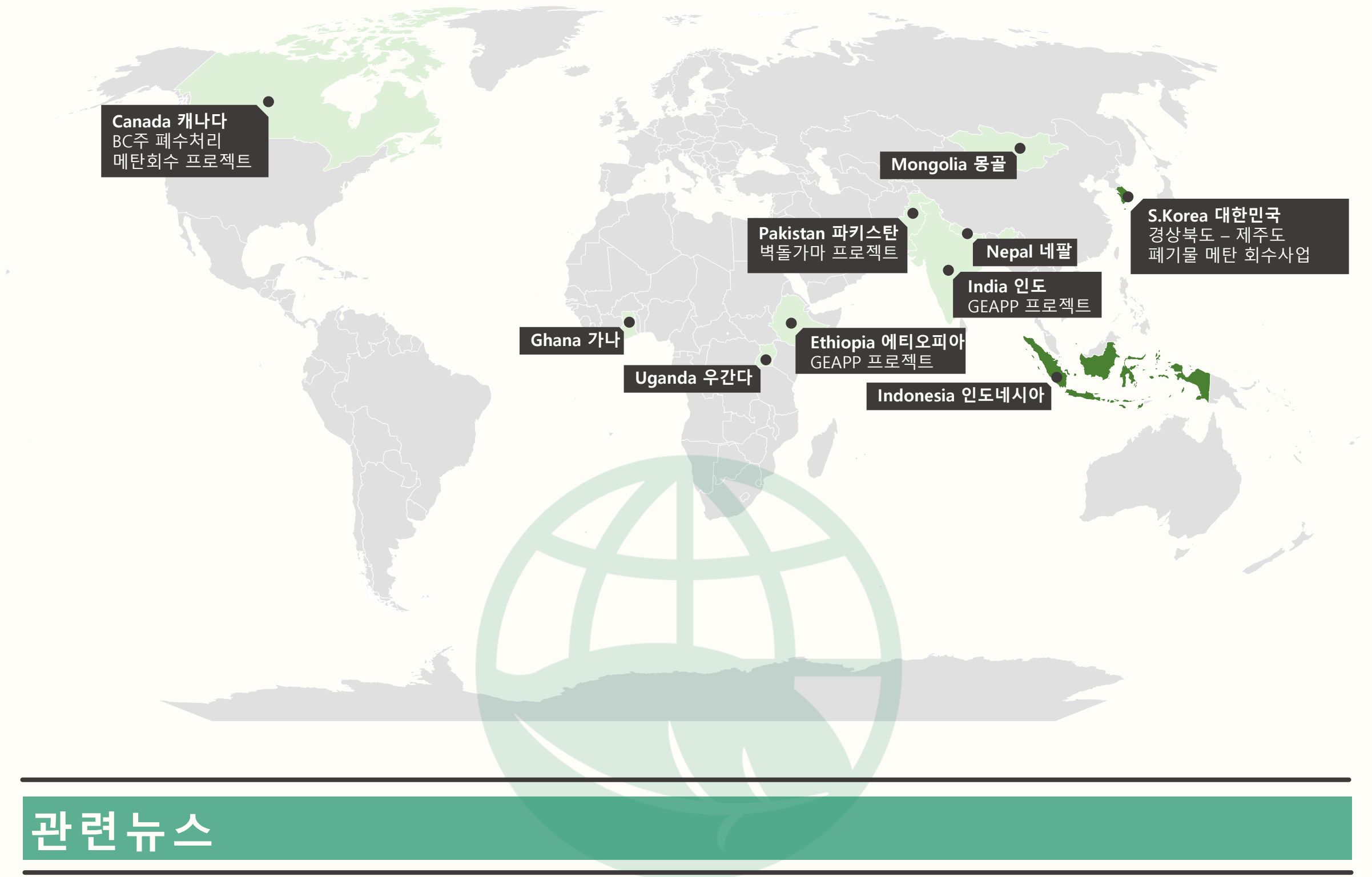
Sector: Finance, Business Services, Technology, Transport, Consumer, Power generation, Industry & Manufacturing, Automotive, Oil & gas, Aviation

Source: Fastmarkets, "The carbon dioxide removal affordability boom: Economic drivers underpinning growing voluntary demand," <https://www.fastmarkets.com/insights/the-carbon-dioxide-removal-affordability-boom-economic-drivers-underpinning-growing-voluntary-demand/>

탄소 배출권 시세

EU ETS	UK ETS	KOR ETS	CA(USA) ETS	CAN ETS	CHN ETS	NZL ETS
€73.41 (+0.56%)	£52.71 (+46.50%)	₩8,940 (-3.87%)	\$29.27 (-8.27%)	\$95 (fixed 2025)	¥69.41 (-28.96%)	\$55.17 (-10.09%)

자국 사업개발 현황



관련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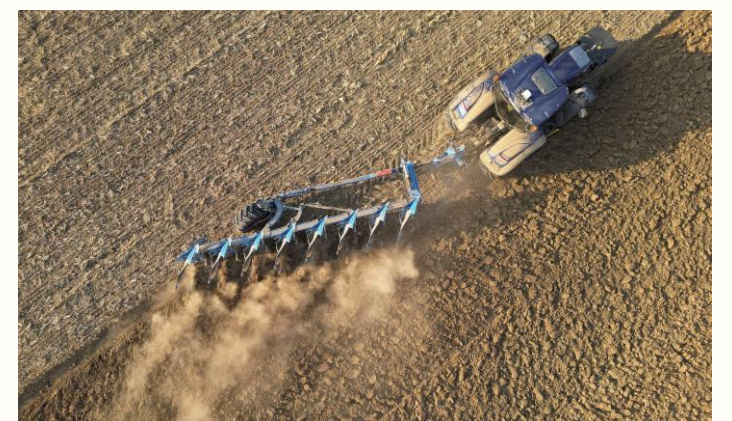
글로벌 은행 규제 당국, 기후 리스크 작업 우선시하기로 합의

글로벌 은행 규제 당국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극단적 기상 현상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 규제 기관들을 위한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자발적 공시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럽과 영국의 규제 전략과 대체로 일치하며, 미국은 정치적 저항으로 인해 여러 기후 중심 이니셔티브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by Virginia Furness - Reuters [원문 보기](#)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 EU 농민들에게 연간 283억 유로 손실 초래

유럽연합(EU)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 연간 평균 283억 유로(약 31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전체 농축산 생산의 약 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 중 20~30%만이 보험으로 보장되어 대부분의 농민들이 재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U 농업위원인 크리스토프 한센은 회원국들에게 농업 보조금을 활용하여 기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50년까지 평균 작물 손실이 최대 66% 증가할 수 있으며, 현재 피해의 절반 이상이 가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y Kate Abnett- Reuters [원문 보기](#)

관련 뉴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대 규모 탄소 제거 계약 체결

스톡홀름 에너지사와 세계 최대 규모의 BECCS 계약 체결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웨덴의 Stockholm Exergi사와 333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BECCS 기술을 활용해 2028년부터 10년간 탄소 제거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간 최대 80만 톤의 탄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자원과 엄격한 검증 기준을 따릅니다. 이번 계약은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의 일환입니다.

by Zoya Mirza- ESG Dive [원문 보기](#)

AI 열풍으로 위협받는 기후 목표 속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차 탄소 제거 계약 체결

마이크로소프트는 볼리비아의 Exomad Green과 협력해 10년간 124만 톤 규모의 바이오차 기반 탄소 제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확장으로 인한 탄소 배출 증가에 대응하고,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기술과 지역에 걸친 탄소 제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 과학적 기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by Lisa Stiffler- GeekWire [원문 보기](#)

미국 폐광지 복원을 위해 140만 톤 규모의 탄소 제거 크레딧 구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애팔래치아 지역의 폐광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140만 톤의 탄소 제거 크레딧을 구매하기로 Living Carbon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만 5천 에이커의 황폐화된 토지를 재조림하여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이번 협약은 과학적 검증 기준을 갖춘 자연 기반 탄소 제거 솔루션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2030년 탄소 네거티브 목표 달성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는 탄소 상쇄 시장에서 고품질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by Saptakee S- Carboncredits.com [원문 보기](#)



ZACOOK